



## 說話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 說話와 古代小說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저자 (Authors)	朴大福
출처 (Source)	<a href="#">한국민속학 20</a> , 1987.8, 109-132 (24 pages) <a href="#">The Korean Folklore 20</a> , 1987.8, 109-132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민속학회</a>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096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0967</a>
APA Style	朴大福 (1987). 說話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한국민속학, 20, 109-1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4 16:1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說話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 說話와 古代小說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朴 大 福\*

目 次	
I. 緒 言	(2) 人物觀相占
II. 說話 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III. 說話와 古代小說의 出生比較
1. 無子와 祈子精誠	1. 祈子精誠의 比較
2. 胎夢과 妊娠	2. 胎夢의 比較
3. 出生과 占卜信仰	3. 自然觀相占과 人物觀相占의 比較
(1) 自然觀相占	IV. 結 言

## I. 緒 言

인류는 태초부터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위력 그리고 생사문제 등 모든 현상들이 초자연력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믿었다. 한국의 경우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님'에 대한 신앙, 즉 천신 신앙에 귀착된다. 한국 민간신앙에서 하늘은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至高存在이며 자연의 모든 신앙적 대상의 신성성을 확보해 주는 근원인 것이다.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건국신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桓雄의 下降과 단군의 출생, 朱蒙神話에서 解慕漱의 출

\*全州 又石大

현과 주몽 孕胎時의 빛, 赫居世神話의 異氣와 白馬의 昇天, 首露王神話의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와 드리워진 紫繩 등은 출생이 하늘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의 徵表를 받은 신성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建國始祖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신화의 인물들은 神異性을 통하여 그 출생 淵源이 하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하늘의 의사에 의해 탄생한 인물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우주의 질서 자체이며 至上的 神聖性인天和 관계를 맺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화는 영웅의 出生譚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신화는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종교적 의미를 그 본유의 것으로 지니면서” 동시에 인물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一代記를 ‘이야기’한다.

요약하면 신화는 “英雄의 一生”이라는 ‘이야기’의 구조에 ‘宗教性’을 그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 인물의 출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대소설이 신화를 비롯한 說話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러한 속성들이 필연적으로 소설에 傳承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本攷는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하여 三國時代의 신화를 비롯한 說話 주인공의 출생이 종교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를 民間信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고대소설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출생과정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1) 琴章泰, 「韓國古代的 信仰과 祭儀」, 『同大論叢』 8, 同德女子大學, p. 12.
- 2) 徐大錫, 「古代建國神話와 現代口碑傳承」, 『民俗語文論叢』, 啓明大出版社, 1983, p. 196.
- 3) Frederich, J. Streng (정진홍 역), 『宗敎學入門』, 大韓基督敎書會, 1978, p. 133.

## II. 說話 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 이를 흔히 通過儀禮(rites of passage)라 하는데 出生과 成年式, 結婚, 葬禮를 말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순간들이므로 儀禮가 따르며, 각 儀禮는 民間信仰을 그 본질적 요소로 지닌다.

이러한 관념은 神話時代부터 비롯되고 있다. 예를 들면, 赫居世王의 降誕→婚事→命名→即位·建國→死亡의 과정, 그리고 首露王의 降誕→即位·建國→婚事→死亡 등의 전개과정은 通過儀禮의 傳記體라는 사실을 드러낸다.<sup>4)</sup>

通過儀禮 가운데 出生에 따르는 儀禮는 한 개인의 생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그 첫번째 儀禮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家系の 繼承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또 가계의 계승이 자녀의 出生 특히 아들의 출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出產儀禮가 중요시 된다.<sup>5)</sup>

본 장에서는 『三國遺事』 『三國史記』 등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출생과정을 祈子, 妊娠, 出生으로 나누어 民間信仰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 1. 無子와 祈子精誠

韓國民族은 種族保存과 그 繼承에 대한 인간적 본능과 死後 자손의 奉養을 받아야 영혼이 편안하다는 死生觀으로 인해 子孫을 중요시하였다. 祈子精誠은 이러한 관념의 소산에서 胚胎된 신앙으로,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이 孕胎하기 위해 인간 이외의 힘을 빌리거나 祈願

4) 金烈圭, 「韓國神話의 象徵體係에 관한 연구」, 『傳統과 思想』(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p. 78.

5) 李光奎, 『韓國人의 一生』, 螢雪出版社, 1985, p. 39.

祭儀에 의해 所望을 이루고자 하는 習俗을 말하는 것이다.<sup>6)</sup>

- (가)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sup>7)</sup>  
 (나) “夫婁老無子 一日祭山川求嗣”<sup>8)</sup>  
 (다) “絕無後胤 乃歸心三寶 造于千部觀音 希生一息 祝曰 若生男子 捨作法海 津梁”<sup>9)</sup>  
 (라) “王一日詔表訓大德曰 朕無祜不獲其嗣 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 訓上告於 天帝”<sup>10)</sup>

위의 例에서 血統의 계승을 위하여 祈子行爲가 다양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는 檀君神話에서 熊女의 祈子行爲이다. 神壇樹下에서 孕胎를 呪願했다는 것은 나무[神木]가 信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熊女의 祈願이 神壇樹를 매개물로 하여 神에게 전달됨으로써 나무의 神聖性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夫婁가 자식이 없어 後嗣를 얻고자 山川에 祭祀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祈子의 대상이 水神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例는 脫解王<sup>11)</sup>과 東川王<sup>12)</sup>의 出生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는 慈藏의 아버지 茂林이 觀音에 아들 낳기를 바라는 例이다. 이는 불교가 傳來되자 祈子의 대상이 불교의 ‘神’<sup>13)</sup>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崔丞魯의 出生<sup>14)</sup>도 父母가 觀音菩薩에 발원한 뒤 잉태한 例이다. (라)는 祈子의 방법이 앞의 例들과 전혀 다르다. (가)(나)(다)의 경우는 山의 나무 아래, 혹은 山川이나

6) 任東權, 「서울의 産俗」, 『韓國民俗學論叢』, 宣明文化社, 1971, p. 149.

7) 『三國遺事』, 卷一, 古朝鮮 王儉朝鮮.

8) 『三國遺事』, 卷一, 東扶餘.

9) 『三國遺事』, 卷四, 慈藏定律.

10) 『三國遺事』, 卷二,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11) 『三國遺事』, 卷一, 脫解王.

12) 『三國史記』, 卷十六, 山上王.

13) 불교의 神이라는 것은 불교 자체에 존재하는 神이 아니라 당시 民間에서 믿었던 神이라는 뜻이다.

14) 『三國遺事』, 卷三, 三所觀音衆生寺.

觀音前에 祈子精誠을 한 데 비해, (라)는 後嗣가 없는 景德王의 부태으로 승려인 表訓이 직접 上帝에게 請願한다. 이러한 기록은 天帝가 人間의 出生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 예라 하겠다.

위에서 인용된 것들은 비록 적은 예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포되어 있는 民間信仰의 意味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祈子の 장소는 山 혹은 山川이 주된 곳이다. 이는 祈子 뿐만 아니라 일반 民間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특히 古代 人들의 종교적 기초는 하늘에 대한 信仰에 있었으며,<sup>15)</sup> 山은 天上과 地上의 中間의인 위치로 말미암아 하늘의 존재가 降臨하는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人間에게는 하늘의 존재가 降臨할 수 있는 곳 이니까 神聖한 장소가 된다. 山의 이러한 성격은 하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고, 후에 그 기능이 분화되면서 人間과 가장 친밀한 山神으로 구체화 된다.<sup>16)</sup>

祈子는 장소에 따라 삼신·七星神·山神·龍王神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는 최근의 조사 보고와 비교하면<sup>17)</sup> 民間信仰의 神은 하늘과 관련 되어 질 수 있는 추상적인 관념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致誠祈子の 주담당자는 王이나 男便들이다. 檀君神話의 경우는 熊女가 행하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므로 예외에 속한다. 이는 오늘날 傳承되고 있는 祈子俗과는 대조된다. 現存 民俗에서는 婦女子가 주담당자이고 男便들은 대체로 관계하지 않는다.<sup>18)</sup> 이러한 특징은 가족제도에 儒敎의 영향이 미칠 수 없었던 시대배경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이 時代는 朝鮮時代와 같이 女子에게 三從之道

15)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出版部, 1975, p. 49.

16) 李恩奉, 「檀君神話를 통해 본 天神의 構造」, 『檀君神話研究』, 은누리, 1986, p. 187.

17) 呂重哲, 「祈子俗에 대한 人類學的 考察」, 『女性問題研究』, 제8집, 曉星女大 女性問題研究所, 1979, p. 211.

18) 呂重哲, 「祈子俗에 대한 人類學的 考察」, 『女性問題研究』, 제8집, 曉星女大 女性問題研究所, 1979, p. 212.

나 七去之惡과 같은 사회규범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또 “男子가 女子보다 優位에 있었다 하더라도 賤待視하지는 않았다”.<sup>19)</sup> 때문에 無子를 이유로 鬻鬻 내치거나 鬻을 맞아 들이는 것이 慣習化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神話時代는 男系에 의한 家系繼承이 일반화되었으므로 男子가 子孫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男子가 致誠祈子를 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세째, 致誠祈子와 佛敎信仰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慈藏과 崔丞魯가 觀音菩薩에 父母의 祈子發願으로 誕生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新羅後期에 나타난다. 이는 祈子の 대상이 다양해졌다는 것과 함께, 불교가 民間信仰에 習合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 불교의 祈子發願은 그 근거를 法華經에서 찾을 수 있으나<sup>20)</sup> 이것은 불교가 民間信仰과 習合할 수 있는 契機를 提供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국 민중의 불교 수용 양상이 在來의 神靈에 대한 신앙을 견지한 채 불교를 받아 들였고 기도의 내용이 壽福, 財福, 平安 등 土着宗教와 동일하다는 사실은<sup>21)</sup> 부처와 菩薩이 民間信仰의 한 ‘神’의 의미로 변모 수용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네째, 人間과 天上과의 관계에 中間者의인 성격의 지닌 人物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라)의 表訓大師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人物이다. 그는 비록 佛僧이지만 人間으로서 왕의 소원을 天上에 올라가 天帝에게 고하고 天帝의 말씀을 왕에게 알려주는 ‘傳達者’의 임무를 행하고 있다.<sup>22)</sup> 또한 表訓이 景德王의 소원을 天帝에게 고하였다는 것은 하늘에 대한 관념이 畏敬스러운 存在에서 人間의 요구에 응하는 存在로

19)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韓國文化史大系』Ⅳ,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70, p. 443.

20)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若有女人 設欲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知慧之男”

21) 柳東植, 『民俗宗教와 韓國文化』, 現代思想社, 1978, pp. 197~168.

22) 원래 신선이 담당하는 것으로 佛僧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金鉉龍, 『韓國古說話論』, 새문社, 1984, p. 163.)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가 민간신앙화한 예라 하겠다.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建國神話의 人物들이 人間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하늘의 뜻에 의해 誕生하였다면 여기에서는 人間의 소원을 하늘에 전달함으로써 한 人物이 誕生할 수 있었다. 즉 神을 위한 信仰에서, 人間 위주의 信仰으로 변모되고 있다.

## 2. 胎夢과 妊娠

꿈이란 人間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神秘와 未知의 現象이다.<sup>23)</sup> 꿈의 不可思議에 대해서는 諸說이 있으나 民間에 傳來되고 있는 관념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꿈에 나타나는 여러 現象은 미래에 대하여 豫知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sup>24)</sup>

胎夢은 妊娠을 前後하여 胎兒와 관련된 꿈을 말하는 것으로 人間은 孕胎부터 超自然的인 신비의 세계와 관련을 지닌다는 意識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性行爲와 生殖現象과의 因果關係를 알지 못했던 古代人들은 이 兩者를 분리하여 性行爲는 단순한 감각적인 쾌락으로 인식했고 妊娠, 出産의 현상은 不可解의 神聖한 것으로 믿었다.<sup>25)</sup> 出産을 神聖視하는 관념에서 유래한 胎夢은 오늘날까지 民間에 傳承되어 믿어지고 있다. 다음은 『三國遺事』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胎夢의 例들이다.

(가) “類年有夢得熊羆之兆 誕生太子 居登公”<sup>26)</sup>

(나) “是月十五夜 夢天謂曰 吾令汝小后生男”<sup>27)</sup>

(다)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sup>28)</sup>

(타) “萬明亦以辛丑之夜夢 見童子衣甲乘雲入堂中 尋而有娠”<sup>29)</sup>

23)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72, p. 282.

24) 任東權, 「民間信仰」, 『宗教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1975, p. 239.

25) 張德順, 『韓國說話文學의 研究』, 서울大 出版部, 1971, p. 123.

26) 『三國遺事』, 卷二, 駕洛國記.

27) 『三國史記』, 卷十六, 山上王.

28) 『三國遺事』, 卷四, 元曉不羈.

29) 『三國史記』, 卷四十一, 列傳, 金庾信.

(마) “初母夢吞青色珠而有娠”<sup>30)</sup>

(바) “見母夢見入有角 而妊身孕生 頭後有高骨”<sup>31)</sup>

위의 예들은 꿈의 徵兆가 장차 태어날 人物을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가)는 居登公이 出生前 그 父母인 首露王과 黃玉이 꾸는 胎夢인데 人間이 꿈 [熊羆]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나)는 山上王이 無子하여 山川에 祈禱한 다음 얻은 꿈이다. 하늘[天]이 직접 人間の 出生에 관여하고 있다. (다)는 元曉의 孕胎時 그 어머니가 꾸는 胎夢이다. 별 [星]로서 장차 태어날 인물을 상징하는 것은 慈藏, 金庾信의 胎夢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sup>32)</sup> 高麗時代는 더욱 많은 예가 있다.<sup>33)</sup> (라)는 金庾信의 어머니 萬明이 꾸는 胎夢으로 童子를 본 후 妊娠한다. (마)는 구슬을 삼킨 예이고, (바)는 꿈에 뿔이 난 사람을 보고 妊娠한 예이다. 위의 사실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꿈의 神秘性을 통하여 人物이 英雄化되고 있다. 위의 人物들은 地上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人間の 몸에서 出生하는데 非凡하다는 徵兆가 胎夢의 超越性으로 表出되고 있다. 建國始祖의 出生을 보면 天上의 存在가 下降하였다는 사실로 英雄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英雄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胎夢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人間の 몸에서 出生한 人物은 胎夢으로 그 非凡함을 啓示함으로써 英雄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둘째, (가)와 (나)는 檀君神話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고, (다)와 (마)는 現存 民間의 產俗과 일치한다. (가)는 꿈이 꿈에 보인 다음 居登公이 誕生하였는데 이는 檀君神話에서 熊女는 원래 꿈으로서 呪願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人間이전 즉 熊女가 人間으로 되기 이전, 또 居登公이 出生前 胎夢

30) 『三國遺事』, 卷五, 明朗神印.

31)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強首.

32) 金庾信에 관한 胎夢은 父母가 각각 다르다.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33) 任東權, 『韓國民俗學論攷』, 宣明文化社, 1973, pp. 326~329.

이 똑같이 꿈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天神이 山上王에게 現夢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檀君神話의, 天帝 桓因이 그 아들을 地上으로 보낸다는 사실에서 檀君神話가 그 淵源이 됨을 알 수 있고 또 天帝의 직접적인 관여로 人物이 地上에 出生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다)에서는 별이, (마)에서는 구슬이 장차 태어날 人物로 상징된다. 이러한 예들은 現在 民俗에서도 傳承되고 있다.<sup>34)</sup> 다만 별과 구슬이 胎夢으로 똑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와 (마)의 예는 人物의 非凡함을 강조하는 면이 강한테 비하여 現在 民俗에서는 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구별된다. 神話時代부터 오늘날까지 이러한 信仰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은 胎夢에 관한 믿음의 根源이 깊고 매우 강함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세계, 胎夢을 통한 民間信仰의 세계가 인간의 認識 세계에, 보다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建國始祖들의 出生은 天上에서의 下降이나 하늘에서 드리워진 紫繩, 白馬의 昇天 등 超經驗의인 신앙세계가 전개되는데, 앞에서 예로 든 人物들의 出生은 人間이 경험할 수 있는 꿈의 세계를 통하여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人智의 발달에 따라 점점 경험을 증시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이 민간신앙에 투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 3. 出生과 占卜信仰

民間信仰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人間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관념에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信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自然의 변화 현상이나 人間의 모습은 人間의 운명과 필연적인

34) 任東權, 「서울의 産俗」, 『韓國民俗學論攷』, 宣明文化社, 1973, (1961년 조사). p. 161.

——, 「忠州 水沒地區의 民俗調査」, 『韓國民俗文化論』, 集文堂, 1983, p. 231. (1979년 조사)

李鍾哲, 「風俗의 信仰構造와 社會的 象徴」, 『月山任東權博士頌壽記念論文集』(民俗學篇), 集文堂, 1986, p. 345. (1981~1983년 조사)

상관성의 表出이라 여겼다. 說話 主人公이 誕生할 때 나타나는 例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身生光彩鳥獸率舞天地振動 日月清明”<sup>35)</sup>
- (나)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sup>36)</sup>
- (다) “以五月五日 生於外家 其時屋上有素光 若長虹 上屬天日官奏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且光焰異常 恐將東不利於國家 宜勿養之”<sup>37)</sup>
- (라) “身長九尺 則股之天乙 顏如龍焉 則漢之高祖 眉之八彩 則有唐之高 眼之重瞳 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即位也”<sup>38)</sup>
- (마) “頭後有高骨(……) 又觀兒首有鴈子 於相法面鴈無好 頭鴈無惡 則此必本物乎”<sup>39)</sup>

위의 例들은 出生한 人物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모습이나 주위 자연의 현상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또 이를 해석하고 있다. 하늘의 意志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명령을 전달하는 使臣이나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과 땅사이의 매개체가 필요했다.<sup>40)</sup>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태양, 별, 번개, 구름, 새 등과, 神聖徵表라고 생각되는 신체의 특징이 하늘의 意思를 전달하는 매개체들이라고 믿었다. 人間과 하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매개체들은 앞에 든 例와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현상을 통한 관련과 人物의 신체적 특징이나 얼굴을 통한 관련으로 나눌 수 있는데 民間의 占卜信仰에서는 自然觀相占과 人物觀相占이라고 분류한다.

#### (1) 自然觀相占

자연현상을 보아 사람의 吉凶禍福과 미래에 일어날 징후를 판단하

35) 『三國遺事』, 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

36) 『三國遺事』, 卷四, 元曉不羈.

37) 『三國史記』, 卷五十, 列傳, 弓裔.

38) 『三國遺事』, 卷二, 駕洛國記.

39) 『三國史記』, 卷四十六, 列傳, 強首.

40) 李玉, 『高句麗 民族 形成과 社會』, 教保文庫, 1984, p. 138.

고 때로는 國家運命까지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것 보다는 변화되는 자연현상이 어떤 啓示의 徵表라고 생각하는 관념에서 비롯된다.<sup>41)</sup>

앞에서 (가)의 異氣, 光彩, 天地振動, 日月清明 (나)의 五色雲과 (다)의 素光 등이 自然觀相占의 예이다. 이 외에도 金閔智 出生時의 光明과 紫雲, 鼻荊郎 出生 때의 天地振動 등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說話 主人公의 出生과 관련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빛”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朱夢이 햇빛에 의해 孕胎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빛[光]은 說話 主人公의 出生 특히 王들의 出生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빛을 비롯한 자연현상들, 구름, 天地振動, 日月清明 등은 하늘의 神聖 징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미래 비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예측케하는, 즉 상서로움의 豫兆를 나타내는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說話 主人公의 出生과 관련된 自然觀相占은吉凶을 판단하는 占卜의 기능과 함께 人間과 하늘과의 관계도 강조하는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2) 人物觀相占

신체상에 나타난 諸相 즉 얼굴, 머리, 손, 발, 배, 눈썹, 음성, 행동 등을 관찰하여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것을 觀相점이라고 한다. 觀相점은 신비성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통계적이고 경험적이며 印象에 의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sup>42)</sup>

앞에 든 (라)와 (마)가 人物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豫知하는 實例들이다. (라)는 首露王의 觀相을 기록한 것인데 얼굴, 눈썹, 눈동자 등이 觀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는 強首의 觀相으로 머리 위의 높은 뼈[頭後有高骨]와 머리속의 사마귀[癩子]를 賢者가 점친 것으로 장차 뛰어난 人物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물론 占은 的中했다. 그

41) 任東權, 「民間信仰」, 『宗教란 무엇인가』, 분도出版社, 1975, p. 241.

42) 상계서, p. 251.

〈丑 1〉

說話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종류 이름	祈子	胎夢의 상징	出生時의 占卜	
			自然觀相占	人物觀相占
檀君 金蛙 朱夢	呪願有孕 山川求嗣			岐嶷異常 骨表英奇 相者占之曰 貴而當王
赫居世			異氣, 天地振動 日月清明	
首露王				顏如龍焉眉之八彩 眼之重瞳
居登公		熊熊之兆		
脫解王	禱祀求息		光明, 紫雲	
金閼智		熒惑鎮二星降於己 童子衣金甲乘雲入堂中		背有七星文
金庾信			五色雲覆地	
慈藏 元曉 明朗師	造于千部觀音 (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	星墮入懷 流星入懷 吞青色珠		
東川王 強首	禱於山川	夢天謂曰 人有角		頭後有高骨, 首有鬚子
弓裔 鼻荊郎 崔丞魯	大慈前祈禱		素光 天地振動	

리고 朱夢이 알에서 나왔을 때 기골[骨表]이 뛰어나 모습이 비범[岐嶷異常]했다는 것이라든지,<sup>43)</sup> 또 金庾信이 일월성 일곱별의 정기[稟精七曜]로 태어나서 등에 七星의 무늬가 있다<sup>44)</sup>는 예들이 있다.

43) 『三國遺事』, 卷一, 高句麗.

44) 『三國遺事』, 卷一, 金庾信.

한편 人物의 出生과 관련한 觀相占은 妊娠한 女子의 모습을 보고 占을 쳐서 胎兒의 未來를 豫知하기도 한다. 三國遺事에서 「珠琳傳」의 것을 인용한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寧稟離王의 侍婢가 妊娠하자 相者가 王이 될 것이라고 占을 쳤다. 그리고 相者가 占을 쳤다는 것은 觀相을 보고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 強首의 觀相을 賢者가 설명하고 있고, 首露王의 觀相을 中國古代的 王들과 비교한 것을 보면 觀相은 경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필요한 占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觀相占은 神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民間信仰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도표로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 Ⅲ. 說話와 古代小說의 出生比較

古代小說은 說話에서 판소리, 판소리에서 小說,<sup>45)</sup> 또는 實事에서 說話, 說話에서 小說<sup>46)</sup> 등의 移行過程들을 거쳐서 形成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說話와 小說은 傳記的 類型<sup>47)</sup> 혹은 英雄의 一生<sup>48)</sup>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小說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형태가 說話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說話와 小說은 民間信仰과 관련하여 어떤 공통적 기반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出生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小說作品中에서 主人公의 出生過程은 다음과 같은 叙事構造로 전개된다.<sup>49)</sup>

45) 金東旭, 『春香傳研究』, 延世大出版部, 1965, p. 67.

46) 張德順, 『韓國說話文學의 研究』, 서울大出版部, 1971, p. 212.

47)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5, pp. 55~65.

48)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7, pp. 288~289.

49) 拙稿, 「古代小說主人公의 出生過程과 民間信仰」, 中央大 大學院, 1981, p. 13. (說話와 비교되는 古代小說의 主內容은 이 論文에 근거함을 밝혀둔다.)

- [A] 主人公의 父母는 名門巨族의 後裔다.  
 [B] 幸福하게 살고 있으나 다만 슬하에 일점설육이 없어 슬퍼한다.  
 [C] (婦人이 男便에게) 첩을 얻어 代물 이을 것을 권한다.  
 [D] (男便은) 無子함은 婦人의 罪가 아니고 다 팔자이며 前生의 罪라 하고  
 거절한다.  
 [E] (婦人이) 祈子精誠을 드릴 것을 提議한다.  
 [F] (夫婦 함께) 名山大川을 찾아 祈子精誠을 올린다.  
 [G] 胎夢을 꾸다.  
 [H] 胎氣가 있는 후 主人公이 出生한다.  
 [I] 主人公은 凡常한 모습이 아니다.

主人公의 出生過程 가운데 [B][C][D]는 祈子の 이유와, [E]와 [F]는 祈子精誠과 [G]는 胎夢과 [H]는 自然觀相占과 그리고 [I]는 人物觀相占과 관계되는 단락들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1. 祈子精誠의 比較

民間信仰의 神格들은 天帝·日月星辰·山川·樹石·부처·仙官·道士·祖靈 등 다양하다. 그리고 여러 神格들의 상호관계는 上·下的 뚜렷한 구별이 없고 다만 天帝만이 人間의 운명을 주관하는 至高存在로서 지상의 모든 일들을 관장한다. 기타의 神格들은 天命을 전달하거나 天意를 대행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祈子精誠은 이러한 神들에게 지극히 祈禱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관념에서 나타난 信仰行爲이다. 建國神話의 主人公이 하늘의 권여에 의하여 誕生되었다는 것은 人間의 出生이 神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暗示한다.

그런데 說話에서 등장하는 主人公들이 出生前에 그 父母가 자식을 원하는 동기를 보면 「老無子」<sup>50)</sup> 「久無子胤」<sup>51)</sup> 「絕無後胤」<sup>52)</sup> 「久無胤

50) 『三國遺事』, 卷一, 東扶餘.

51) 『三國遺事』, 卷一, 脫解王.

52) 『三國遺事』, 卷四, 慈藏定律.

<표 2>

古代小說主人公의 出生과 民間信仰

分類 小說	子孫을 원하는 이유	祈 子			胎 夢				自然觀相占	人物觀相占
		祈子精誠의 場所 하는 사람	祈子精誠하는 對象 神	胎兒의 前生 身分	胎兒를 指한 神	胎兒出生事出(前生의 罪目)	胎兒의 形象			
春 香 傳	先塋香火 死後監葬	婦人	智異山 山神	洛浦의 달	頭流山 神靈	玉京에 갔다가 廣寒殿에서 赤松子  만남	仙 女	향기 만실 채운이 영동		
沈 清 傳	先塋香火 死後監葬 저승에 가서 祖上대할 緣 木 없음	男便	名山大川 古廟叢祠 釋王寺	諸神에 祈願과 積善	仙女(西王 母의 딸)	太上老君 后土夫人 諸佛菩薩	玉眞妃子와 만나 수작 하여 上帝의 노여움 을 삼	仙 女		
申 遺 腹 傳	祖先에 큰 罪人이 됨	婦人	漢拏山	天地日月 星辰	天上奎星 仙童	仙官	上帝께 得罪	오색 채운 향기 만실	용모장대하여 표 법의 머리, 용의 얼굴, 꿈의 등, 잔나비 팔, 이리 허리, 소리가 뇌 성.	
張 國 振 傳	先塋香火	절	부처님	천상 벼락 성	世尊	玉帝께 得罪	育 龍	서기 집을 두르고 방중 향내 가득	검은 점이 이십 팔수불 닮아 있음	

劉忠烈傳	死後監靈	婦人	南嶽衡山	山神靈	자미원 대장성 유황시동	南嶽山神靈	익성과 서 움	仙官			
金振玉傳	祖先香火그침	婦人	화산 화수암	화수암 부처		화수암부처	朝會때 玉皇앞에서 女子侍童 죄통한 罪	仙官	서기 집을 두르 고 방중 향내 두	미간에 강산수기 역었고 용중경천 위지할 조화물 잔 흙	
金喜慶傳	祖先香火그침	老僧	皇龍寺	부처	仙童	皇龍寺부처	天上에 得 罪	仙童		기상이 옥으로 새 긴듯 형상이 명 량함	
王將軍傳	死後先祖비울 면목 없음	婦人	衡山 축음봉	神靈	후한 오호 대장 아들 의 환생	축음봉 산신령	上帝가 불 쌍히 여김	將軍	서기 집을 두르 고 방중 향내 가득	골격이 웅위하고 용모비범	
柳花奇夢	屢代香火 끊 어져 九天에 서 先祖비울 면목 없음	婦人	道花峯 자하암	佛像	天上太乙星	釋迦世尊	上帝께 得罪	꽃이 번 하여 靑 龍이 됨	채운이 집을 두 르며 향기만 실	골격이 비상하고 울음소리 웅장함 봉안이 효성같고 정신이 추수같은	
六孝子傳	祖先香火 끊 겨 祖上비울 면목 없음			土后神靈 님	東海龍子	北斗七星	관동에 비 그릇 준 罪	龍	오운이 일어나 고 방중 향내 진동	골격이 웅위하고 용모 청아 쇠락 하여 집짓 기린 이요 용이라	
鄭乙善傳	萬年香火그침 死後白骨이 祖先에 큰 罪 人		봉래산	산신령	南海龍子	봉래산신관	上帝께 得罪	홍의동자	오색 채운 향 기 만실	용모 장대하여 표 법의 머리, 용의 얼굴, 몸의 등, 간나비 팔, 이리 허리, 소리가 너 성	

魚龍傳	婦人	천산금불암	부처	東海龍子	금강산부처	上帝계得罪		오운이 집을 두어 르며 향기 만실 오운이 일어나 고 방중 향내 진동	얼굴이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함 용안후두에 봉목 용준
薛弘傳	婦人			천상선군	쌍룡사부처		청의선관		
		奉祀 전하지 못함 先祖를 대할 면목 없 음							
郭海龍傳		祖先香火 死後監葬		南海龍子	觀音菩薩	天宮에 갔 다가 勝負 다툼으로 上帝계 得 罪	仙 女	천지 명량 방중 향기 진동	
柳文成傳		一點血肉이 없음을 한탄 함				진선군과 룡소로 룡 하다가 玉 帝계 得罪	仙 女	채운이 집을 두 르고 방중 향내 진동	얼굴이 백옥같고 울음소리 정연함
陰陽玉指環			名山大川山神 積善	문창선군	금산사 칠 보암 부처	玉帝계 得罪	童 子	한줄 무지개 공 중으로 부터 칩 실을 둘러싸고 상서로운 구름 이 온집을 덮음	봉의 눈과 계비 턱이며 산천경기 의있으며 소리가 웅장

※ 作品의 主對象 資料는 活字本 古典小說全集(亞細亞文化社)과 舊活字本 古小說全集(仁川大 民族文化研究所)에 수록된 作品이다.

息』<sup>53)</sup> 「王以無子」<sup>54)</sup> 등 늙도록[오래도록] 자식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될 뿐 자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古代小説은 이를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있다. 主人公의 父母는 結婚後 일점혈육이 없어 슬퍼하는데 그 名分이 祖先香火가 끊어지게 되어 死後 祖上을 뵈을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식을 두어 祖上祭祀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社會制度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說話時代에는 子孫이 있어야 한다는 意識은 있었으나 아직 뚜렷한 목적으로 형성되지는 못하였지만, 小説이 生成 진전된 朝鮮時代에는 社會制度와 民間信仰이 결합하여 뚜렷한 이념으로 形成 社會규범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人間은 죽어도 그 靈魂은 超越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건륭의 靈魂崇拜信仰과 朝鮮社會의 治國理念인 儒敎思想이 結合되어, 그 결과 자식이 人間幸福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가치관이 확립되었으며 이것이 小説에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祈子精誠의 主行爲者는 說話가 男便이고, 古代小説은 婦女子이다. 뿐만 아니라 앞의 인용 [D]단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男便은 祈子行爲를 거절하기도 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朝鮮社會가 儒敎中心의 社會이어서 表面的으로는 佛敎나 一般 民間信仰을 억제하였고, 또 女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른바 七去之惡에 해당된다는 社會倫理의 영향으로 婦人이 주담당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祈子精誠을 드리는 主對象神은 說話가 山川神, 觀音佛, 天神 등이고 古代小説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山神과 부처이다. 그런데 小説에서 祈子精誠의 특징을 든다면 呪術祈子를 들 수 있다. 說話와 대부분의 小説作品에서는, 一定한 대상물을 정하

53) 『三國遺事』, 卷三, 三所觀音 衆生寺.

54) 『三國史記』, 卷十六, 山上王.

여 그 곳에 致誠을 드리는 致誠祈子를 행하는데 다음의 小說作品들은 이와 달리 善한 行爲 혹은 특정한 事物이나 특별한 음식 섭취 등 呪術에 의존하려는 呪術祈子의<sup>55)</sup> 구체적인 예들이다.

(가) 積善의 例

◎ 사람의 곤궁한 일과 혼상을 구제하며 병질지인을 많이 살림(玉鸞聘)

(나) 神에 祈願과 積善이 결합된 例

◎ 명산대천 신령당 古廟 巖祠 釋王寺 석불보살 미륵님전 노구맞이 당짓기와 칠성불공 백일상제 계석불공 가사시주 연등시주 창호시주 신증마치 다리적선 길타기 성주 조왕님 제신(沈淸傳)

◎ 명산대찰 기도 불공, 곤궁한 사람적선(콩쥐팥쥐)

◎ 명산대찰에 경성 불쌍한 사람 재물 주어 구제(陰陽玉指環)

◎ 廟堂에 讀祝과 빈궁한 사람 구제(陰陽三台星)

위의 사실들은 呪術祈子가 대부분 致誠祈子와 함께 행하여졌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祈子의 대상신은 어느 특정한 神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神들이다. 이는 一般 民衆에게는, 宗教라든가 神의 영역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現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神이면 상관없다는 宗教意識의 한 表現이라 하겠다.

## 2. 胎夢의 比較

民間信仰에서는 꿈의 現象을 生理的으로 간단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超越的인 神의 啓示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神과 人間과의 意思傳達 측면에서는, 祈子가 人間의 所願을 神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서 행하는 儀禮라면 꿈은 神의 뜻을 人間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啓示라고 볼 수 있다. 胎夢은 人間의 出生과 관련하여 神聖性を 지닌 꿈을 말하는 것으로 古代小說은 說話와 비교하여 다양한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

55) 祈子의 分類에 대해서는 李光奎(外), 『韓國民俗學概說』, 民衆書館, 1975, p. 60 참조

우선 古代小說 主人公의 父母가 胎夢을 얻게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神의 세계가 說話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主人公의 父母는 祈子精誠을 한 다음 胎夢을 꾸게 되는데, 이 때 胎夢을 통하여 人間의 出生에 직접 관여하는 神인 山神靈과 仙官〔星辰〕 그리고 부처 등의 神格들이 主人公을, 그들에게 祈子發願을 한 主人公 父母께 點指함으로써 主人公이 出生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神들은 마음대로 人間의 祈願에 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음의 인용에서 알 수 있다.

(일위 선관이) 그대 전생의 죄 중함으로 금세에 무자하고 남만 한지에서 죽게 접지하였더니 천축국 부처 옥계계 청하여 태을선군의 선동으로 그대의 아들을 삼아……<sup>56)</sup>(현대어 표기, 괄호안 필자)

人間의 精誠에 감동한 부처는 上帝께 자식 접지를 청하여 소원을 성취케 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 神들은 人間의 소원을 직접 들어주지 못하고 至高의 神인 上帝의 허락을 받은 후 들어주는, 즉 天上과 地上的 中間者의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中間者의인 性格은 說話에서 表訓大師의 性格과 비슷하나, 神들이 居住하는 곳은 超越의 세계임에 반하여 表訓大師는 人間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구별된다.

한편 說話에서는 神의 세계가 小說과 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東川王의 胎夢에 天帝가 나타나 자식을 낳게 한다는 말만 전하는 一例가 있을 뿐이다.

위와는 대조적으로 主人公의 胎夢 形象이 별과 구슬로 상징된다는 것은 說話와 공통점을 지닌다. 說話에서는 胎夢의 상징 8가지 事例 중 金庚信, 元曉, 慈藏의 胎夢이 별로, 明朗師의 胎夢이 구슬의 형상으로 主人公을 상징하고 있다. 古代小說에서 별은 주로 天帝를 보좌

56) 雙珠奇緣,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第26卷, 仁川大民族文化研究所, p. 308

하는 仙官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尹成(申遺腹傳) 태을성(淑香傳, 五仙奇逢, 柳花奇夢), 대장성(劉忠烈傳), 태백성(朴氏傳), 문창성군(陰陽玉指還), 익성(張翼星傳), 심성(柳文成傳, 林虎隱傳), 제일각성(謝角傳), 규목성(張國振傳)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는 說話에서 胎夢의 상징성을 小說이 계승하면서 동시에 天帝를 중심으로 한 天上世界에서 神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구슬이 主人公을 상징하는 小說作品은 <權龍仙傳> <陰陽三台星>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점 외에도 古代小說은 胎夢을 통하여 主人公의 前生身分과 主人公이 出生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으나 說話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人物의 出生에서 說話와 小說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胎夢의 상징성을 들 수 있다. 즉 說話의 胎夢은 人物이 별이나 구슬을 삼킨다든가 하는 상징성이 강한데 小說의 胎夢은 꿈에 장차 태어날 人物이나 點指한 神 등이 現夢하여 人物이 탄생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 3. 自然觀相占과 人物觀相占의 比較

民間信仰은 人間의 모습이나 자연현상 등에 宗教的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人間과 自然이 神聖하다는 것은 아니다. 神으로부터 보통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徵表가 부여되었을 때 그것은 神의 意思表示로 간주되어 神聖한 것이다. 어떤 神異한 徵表가 자연현상과 관련될 때 이를 自然觀相占이라 하며, 이것이 人物의 모습과 관련될 때 人物觀相占이 된다.

說話 人物의 出生에 있어서 自然觀相占은 ‘빛’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祥瑞로운 것을 意味하고 동시에 하늘과 出生한 人物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古代小說의 主人公은 거의 대부분이 彩雲이 집을 두르고 향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出生한다. 즉 說話가 하늘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古代小說은 오색 구름의

祥瑞로운 豫兆와 함께 自然의 변화 곧 능동적인 움직임을 중요시하여 觀評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人間의 身體의 특징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 人物觀相占의 경우, 說話主人公의 出生에서는 얼굴·눈썹·눈동자·머리 위의 높은 뼈·사마귀·기골의 튀어남·등의 칠성무늬 등 비교적 다양한 부분들에 걸쳐 觀評한 例들을 찾아 볼 수 있다. 古代小說은 더욱 많은 例들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울음소리·얼굴의 모습·眉間·골격·痣點들을 評한 例가 많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人物觀相占은 說話와 小說의 공통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小說作品은 울음소리를 評한 例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반하여 說話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自然觀相占과 人物觀相占에서 說話나 古代小說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古代小說이 說話보다 변화현상을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自然觀相占에서 古代小說이 대부분 구름의 변화를 觀評한다든가 人物觀相占에서 울음소리에 관한 評이 많다는 것이 그 實例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例가 나타나는 빛은 자체적으로 움직인대거나 변화할 수 없지만 구름은 뭉쳐서 스스로 변화하면서 움직이며, 울음소리 또한 가장 쉽게 듣고 感知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구름은 잘 변화한다거나 어린아이는 잘 운다는 사실에서 小說은 경험적인 것을 중요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 IV. 結 言

人間은 자신의 의지와 神의 뜻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存在라고 믿었다.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치는 어려움은 神에게 정성을 다하여 祈禱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연의 여러 변화 현상은 神의 意思傳達이라고 하여 그것을 해석

하고자 했다.

本攷는 『三國遺事』 『三國史記』를 中心으로 하여 說話 主人公들의 出生은 民間信仰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 古代小說에서는 說話의 이러한 속성을 어떻게 계승 진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의 導出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說話의 主人公들은 出生前 父母가 致誠祈子를 山의 神樹, 山川, 觀音佛, 大師에 부탁하여 天帝에게 직접 請願 등으로 行하며 祈子의 주 담당자가 男子들이었다. 그리고 人間과 함께 생활하는 表訓大師가 天帝를 만나 王의 뜻을 傳達한다는 것은 景德王의 부탁으로 天上과 地上의 中間者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과 함께 하늘에 대한 관념이 畏敬스러운 存在에서 人間의 요구에 응하는 存在로 변모함을 볼 수 있다.

胎夢의 形象을 보면 곰, 별, 구슬, 뿔이 난 사람 등이 主人公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天帝가 직접 現夢하여 아들을 점지해 준다 말하기도 한다. 곰과 天帝의 現夢은 檀君神話와 가깝고 별과 구슬은 現存 民俗에까지 傳承되고 있는 胎夢이다.

人物의 出生 때 빛·異氣·素光·五色·雲·紫雲 등의 자연현상이 일어났고 出生한 主人公의 모습에서 얼굴, 눈썹, 눈동자, 머리뿔의 높은 뿔, 사마귀 등을 觀相하고 있다.

說話와 小說의 主人公 出生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祈子精誠의 경우 說話는 男子가 주로 致誠祈子를 행하며, 小說은 女子가 행하고 致誠祈子와 呪術祈子를 함께 행한다. 祈願의 장소가 山川이나 불교의 절이 대부분인 것은 說話와 小說 공통적이다.

說話의 胎夢은 주로 구슬·곰·뿔 등 상징적이고, 小說의 胎夢은 神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山神靈, 仙官, 부처 등이 點指하고 主人公의 前生身分, 出生動機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별이 胎兒로 가장 많이 상징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說話는 단순한데 비하여 소설에서는 天上의 구체적인 人物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自然觀相占은 구름과 향기가 觀相의 주대상이 되는데 說話는 빛과 구름이다. 또 人物觀相占은 대체로 說話와 小說이 비슷하나, 小說이 울음소리를 觀相의 주대상 가운데 하나로서 나타나는데 說話는 없다는 것이 다르다.

이상에서 說話 主人公의 出生은 祈願, 胎夢, 出生 등에서 民間信仰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이 古代小說에 계승되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하게 변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